

피서객 몰려드는데...안전 실종에 사고 위험

리포-여름 휴가철 전남 연안 여객선 타 보니

불안한 접안 안내방송 없고 하선직전 차량·승객 뒤엉켜 복선통신안 팔금 선착장전 접안사고로 49명 부상도...안전규정 강화를

지난 6일 오후 2시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 오후 2시 30분 출발할 청산도행 997t급 차도선(승객과 차량 등 화물을 함께 싣는 선박) 앞에서 탑승수속이 진행됐다. 승객들이 직원에게 승선권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했지만, 직원은 승선권만 대충 훑어볼 뿐 신분증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줬다.

떠밀려 넘어지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여객선사와 해양경찰도 하선준비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선에 앞서 승객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승객의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전남지역을 찾은 피서객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박 안전의식은 '세월호 사고 이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최근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붐이 일면서 전남해상 곳곳에서 낚시대와 요트 운항 관련 충돌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선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여수, 목포, 완도 해상에서 선박사고는 총 1775건으로 충돌, 접촉, 좌초 사고가 384건으로 전체 사고의 26.1%를 차지했다. 여수해상에서 가장 많은 654건이 발생했으며, 목포 646건, 완도 47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수는 지난해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 154건 대비 63건이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고흥군 도양읍 고흥우주전문과학관 앞바다에서 0.6t 소형어선과 9.77t급 낚시대가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북도 선장 A(79)씨와 아내 B(7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완도=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신안군 지도~임자도를 오가는 차도선에서 승객들이 선착장에 도착하기 전 뱃머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특히 승객 대부분이 도착 10여분 전부터 성인 1명이 겨우 오갈 정도로 조그마한 계단에 줄지어 하선을 기다리면서 어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강하고 파고 등도 높은 탓에 승객들은 접안이 끝나기 전까지 출렁거리는 여객선 계단과 난간에 몸을 의지한 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일부 승객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기도 했다.

이날 여객선은 도착지인 청산도 선착장 앞에서 파도에 떠밀리는 바람에 위태롭게 접안했지만, 승객의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방송은 없었다.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은 이어졌다. 승객과 차량이 뒤섞여 출구로 몰리는 바람에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이를 통제·안내하는 직원조차 없었다.

실제 다음날인 지난 7일 오전 10시 59분께에는 신안 송공항에서 출항하던 여객선(216t급)이 도착지인 신안 팔금도 고산선착장에 접안 하던 중 수십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선을 위해 미리 나와 있었던 승객 94명 중 49명이 서로

순천시장 예비후보 전화 여론조사 왜곡 3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에서 전화 착신을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로 착신해서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4회, B씨는 38회, C씨는 59회 등 모두 151회에 걸쳐 모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중박응답을 했다. 지난 2월 실시한 후보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던 예비후보는 3월 조사에서는 1위로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해당 후보는 전화 착신 여론조사 사건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경선에 불참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검사 사칭에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이용 보이콧피싱

금감원 소비자 정보 발령

금감감독원이 최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와 가짜 공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콧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범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사

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공문을 보여주겠다며 숫자로 이뤄진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가짜사이트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며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 체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성운전자만 노려 170차례 고의 사고

TV 보고 범행 수법 익혀 3천만원 챙긴 40대 구속

좁은 골목에서 여성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신체 일부를 부딪히는 수법으로 170여 차례 돈을 뜯어낸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이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광주 도심의 골목에서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 운전자 176명과 보험사 6곳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액정화면이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차에 부딪힌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 176명은 모두 여성운전자다. 회사원인 이씨는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을 만들어 적당히 합의하자

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이씨가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혔다고 여겼지만, 가짜 명함을 보고 나서는 의심의 거둔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동중 전과가 없는 이씨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범행 수법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넘게 이어진 범행은 2014년 3월 사건 때 피해 운전자와 담당 보험사 직원의 충고를 받으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이씨의 사기행각은 보험금 지급 내용을 상상하 여긴 금융감독원의 신고로 4년 만에 탄로 났다. 금감원은 특정 기간 한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생략비가 부족해 보험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냈다. 경찰은 기소외의 이유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인사권 남용 혐의' 진안군수 이례적 정식재판 회부

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법원 '법리적 판단 필요'

전주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주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으로 임명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고 인사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돈을 주고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약식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군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여고생 추행 교장 구속

광주 광산경찰은 10일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광주 A고등학교 B교장을 구속했다.

B교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생활지도 과정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31일 직위해제된 B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사 4명도 학생들을 희롱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사 4명을 교장과 같은 혐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자후배 성폭행 의혹 바둑기사 김성룡 9단 프로 자격 박탈



○...한국기원이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바둑기사 김성룡 9단의 제명을 확정.

○...김 9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4월 외국인 여자기사 디아나(헝가리) 초단이 '9년 전 김성룡 9단의 집에 초대받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블로그에 올린 후 제기된 바둑계에서 불거졌는데, 한국기원 관계자는 "김 9단은 앞으로 프로 대회 출전 등을 하지 못하고 '9단' 칭호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0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송광수 한국기원 부총재 주재로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80%가 넘는 이사가 김 9단의 프로기사 자격을 박탈에 찬성했다는 것.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잡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